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5. 3 통권 제3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편집인 / 장사하고 싶어하는 북한 사람들 / 김학준 2

특별기획

중국 「인민일보」 서울 지국장과의 인터뷰 / 정순원 4

이념의 조신

선점가치와 대화논리의 조화 / 박시룡 23

시사특집

경협 참여 국내외 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

- 대기업을의 대북 진출 전략 / 김원태 28
-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 / 이석기 37
- 유럽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 / 장자크 그로하 47

국제회의

제5차 동북아경제포럼 참관기 / 김규환 54

연구논단

- 북한의 국토기반시설 현황과 과제 / 박헌주 58
- 북한의 대미 핵협상의 특성과 교훈 / 김용호 71
- 남북한의 정치이념과 통일이념의 모색 / 황병덕 87

통일논리

남북문화·예술교류 - 접점과 평행선 / 김경웅 109

이념경제논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 평가와 전망 / 김육 116

조선민주주의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일반국민과 전문가) / 이병두 125

사상: 남북교류협력 현황 160

장사하고 싶어하는 북한 사람들

김학준 / 단국대 재단이사장

두서너 해 전에 북한에서 나온 소설들 가운데 필자로서는 무척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 있었다. 그 소설은 북한의 많은 직장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각자 나름의 부업을 갖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아주 제약되어 있는 사회이다. 소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소설은 모두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서 존재한다. 그 소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소설은 「사회주의가 실현된 지상 천국」의 북한에서 심지어 경찰관이나 일반 공무원까지, 아니 중견급의 당 간부나 심지어는 군의 고급 장교도 부업을 갖고 생활하는 모습을 노출시켰던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했다. 공식 세계에 부업이 본업인지 본업이 부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부업이 만

연돼 있는 것을 경고하고 사상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실태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업이라고 해서 뭐 번번한 것이 있지는 않다. 어느 경찰관은 집에서 엿을 고아 만들고, 어느 시청 공무원은 집에서 두부를 만들며, 어느 육군 장교는 집에서 양말을 만든다. 재료는 근무처에서 슬쩍슬쩍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동네에 정기적으로 장이 선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시장이 형성된다는 얘기다. 이곳으로 각자 집에서 만든 물건을 들고 나와, 물물 교환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한다.

북한처럼 철저히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최근 몇 해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모든 것이 배급을 통해서만 공급

되던 북한 사회에 작은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이러한 이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나. 사람 사는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간단히 치부해도 괜찮을까?

아닐 것이다. 오동잎 한 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깨닫게 된다는 표현이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북한의 그 작은 이변을 충분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직업 분야의 사람들이 부업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우선 북한 사람들이 본업 하나만 갖고는 제대로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을 말한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 장사에 눈을 돌렸다는 사실이다. 원시적 형태의 장사, 아직은 상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유치한 단계의 장사에서 생활고의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필자는 느꼈다.

왜냐?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장사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

해 온 여만철씨 일가족이 기자 회견을 할 때, “북한의 젊은이들은 거의 모두가 장사해서 돈을 벌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문제의 소설이 보여 주듯이 북한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장사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선 북한을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장사의 기풍이 확산돼야 상업이 점차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 사회는 비록 늦게나마 천천히 시장경제의 원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에 앞서, 북한 동포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날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을 ‘공산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권력 상층부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했다. 경제 전문가들, 또는 테크노크라트들은 교조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에 입각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상업이 크게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전해야 한다. 상업이야말로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